2013년 1월 (제 4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ONTENTS

PART 01 새해를 맞아 03

PART 02 열린마당 04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기대하며

PART 03 테마전시 05
지켜줘요. 대모거북 /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PART 04 소장품 이야기 07
뻘 배

PART 05 바다강좌 09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심해의 신비를 밝힌다.

PART 06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7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8 박물관 소식 13

PART 09 강연후기 14

새해를 맞아

희망찬 계사 癸巳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한자로 뱀 巳 은 뱀의 모습에서 일어서는 기운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 은 殷 나라때부터 한자문화권에서 시간과 방위 등에 활용돼온 십이지 十二支 에서는 양화陽火로 치는 말의 해와 대조적으로 뱀의 해를 음화 陰火 로 풀이하고 그 뜻은 안으로 따스함과 밝음을 간직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속 안에서 뱀은 대체로 상서롭지 못한 동물로 치부되어 이와 관련한 구전 口傳 은 음침한 민담 民譚 에 그치고 있으며, 위해를 가한 대상에게 반드시 화 禍 를 준다거나, 하물며 뱀도 은혜를 입으면 이를 갚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난태생 卵胎生 또는 난생인 뱀은 1년에 1백마리 이상의 다산인 점 때문에 양기와 다산의 근원, 또는 기원의 대상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서로운 동물은 아니어서 민화와 같은 그림이나 공예품 등에 뱀이 등장하는 모습은 많지는 않지만, 십이지신상 十二支神像 중 뱀의 얼굴에 사람의 신체를 가진 석상 石像 또는 토우 土偶 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주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경주 괘릉 掛陵 김유신묘가 그 최초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뱀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벗는 것을 두고 교훈으로 삼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옛것을 벗어던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양과 서양에서의 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13년 국립해양박물관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전략 목표를 지혜롭게 실천하여 해양문화 · 역사 · 산업 등 해양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해양문화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켜 해양과 관련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 육성하여 폭 넓은 해양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 등을 마련하여 해양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다각적인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친숙한 박물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양유물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영토 등 해양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 종합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실현하여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길 희망합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만들어갑시다. 올 한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국립해양박물관장)

열린마당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기대하며

흑룡의 해인 2012년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우리의 해양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해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무한한 가치에 비해 우리의 역사·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해양을 주제로 한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관한 것은 감격스러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로 열린, 그리고 관람객을 향해 열린 새로운 차원의 국립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진일보하게 만든 새로운 사회발전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개관 6개월을 맞은 12월말 이미 100만 관람객을 돌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열린 바다와 다양한 체험존, 수족관, 그리고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공간을 가진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국민들에게 성큼 다가간 것입니다. 해양문화의 중심 가치로 삼아 국민들에게 해양문화 향유의 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의 행보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한 때부터, 설계·건설·시공·유물수집과 전시에 이르기까지 해양박물관을 위해 안팎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물관인으로서 큰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생명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바다의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를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기관으로서 해양박물관의 역할은 해양강국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다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건립에 기울였던 그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수집·연구·전시 그리고 교육으로 이어지는 박물관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탄탄하게 정비되어 미래의 영구한 발전의 기틀을 잡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문화시대의 박물관은 과거의 박물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참여의 본질은 박물관이 최고급의 문화장소로서 박물관다와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립기관일수록 대중의 기대는 더욱 커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다문화의 본산으로서 박물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사랑받는 세계적인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국가가 일군 바다문화의 새로운 터전을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은 막 출범한 배입니다.
사공은 열심히 배를 젓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순풍을 불어주면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한국에 오는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명소, '한국에 가면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을...' 이라고 할 수 있도록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배기동(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테마전시

지켜줘요. 대모거북 /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상설전시와 더불어 기획전을 운영하면서 관람객에게 타 박물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양유물을 다양하게 보여주려 한다.
대규모의 특별전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지만 상설전시와 연계된 소규모 기획전시는 '테마전시' 라는 이름으로 4층 해양플랫폼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학예연구실 전시1팀에서는 최근 2개의 테마전시를 오픈하였다. 이번 테마전시는 모두 기증받은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바다거북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지켜줘요. 대모거북' 전이다.

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는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전시되었다가 주한엘살바도르대사관측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기증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대모거북은 80~110㎝ 정도 크기를 가진 바다거북의 일종으로 아름다운 등딱지를 가지고 있어, 액세서리 등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갓끈, 안경, 빗 등을 만드는데 대모바다거북의 등딱지를 사용하였다.

전시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대모거북이 알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포획, 문명의 발달로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 기름유출 등 해양환경의 오염때문에 바다거북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다거북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부교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바다거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지켜줘요. 대모거북' 전 전시해설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전

또 하나는 4층 해양플랫폼에서 전시 중인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전이다. 이 전시는 기증받은 유물 중 해상에서의 조난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신호 및 구난장비 들을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자원, 교통로를 제공해주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바다는 인간에게 고통도 안겨주기도 한다. 1912년 발생한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인 '타이타닉호' 사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배의 구조, 구명설비, 무선설비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원칙과 규칙을 논의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발효되어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전시는 이를 토대로 구명설비, 조난신호, 구난식수 및 식량 등으로 나누어 유물을 배치하고,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의 행동수칙들을 발췌하여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해운·항만·해양민속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유물들을 기증받았다.
그리하여 기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유물전을 준비하였으며,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전과 '지켜줘요. 대모거북' 전을 첫 번째로 선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증유물을 이용한 테마전시는 2013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유물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난시 해상에서의 5대 금지사항

기억하라! REMEMBER!

- 바닷물을 마시지 마라 Do not drink seawater
- 오줌을 마시지 마라 Do not drink urine
- 술을 마시지 마라 Do not drink alcohol
- 담배를 피지마라 Do not smoke
-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먹지 마라 Do not eat, unless water is available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소장품 이야기

뻘배

뻘배

꼬막 채취 작업〈김기훈〉

뻘배의 형태는 길이 2m, 폭 40~50cm 내외의 긴 널빤지에 한쪽이 스키처럼 솟아있는 모양이다. 뻘배의 오른쪽에는 철사가 촘촘히 달려 빗처럼 생긴 써래가 달려있다. 이 써래로 갯벌을 훑으면 뻘흙과 함께 꼬막이 걷어 올려지는데, 아낙들이 능숙하게 써래를 좌우로 흔들어 꼬막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낸다. 고무통에 꼬막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뻘배에 실려 바지선까지 옮겨진다.

꼬막은 갯벌이 많은 전남이 주요 생산지이다. 이 중에서도 벌교 꼬막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갯벌인데다 갯벌이 깊어서 그 감칠맛을 으뜸으로 친다. 꼬막 맛은 수라상에 오르는 8진미 중 으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꼬막은 크게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등으로 나누며, 껍데기에 파인 줄과 털 등으로 구분한다. 참꼬막은 18개의 굵은 줄이, 새꼬막은 32개의 가는 줄, 피꼬막은 42개의 줄이 있다. 참꼬막은 털이 없지만 새꼬막과 피꼬막은 털이 있다. 꼬막은 초겨울부터 봄까지 제철이며, 설을 전후해서 알이 탱탱해지면서 맛도 달고 쌉싸래해 최고의 맛을 낸다.

꼬막은 갯벌에서 나는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이아신, 히스티딘, 타우린, 베타인 성분도 있어 음주로 인한 간 해독에도 효능이 있다. 특히 비타민B 복합제로 B12, 철분, 코발트가 많아 여성이나 노약자들의 겨울철 보양식으로 좋다.

꼬막이 영양분이 많긴 하지만 조리법이 까다로워 일반 가정에서 영양분 손실 없이 요리하기가 쉽지 않다. 꼬막 조리법은 우선 껍데기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낸 후 80~90도 물에서 데치듯 삶아야 한다.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껍데기가 벌어져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맛도 질겨지기 때문이다. 끓는 물에 잠기게 하고 한쪽 방향으로 저어가며 2~3분간 살짝 껍데기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삶아낸다. 이렇게 삶아내면 꼬막을 까기 쉽고 속살이 붉은 빛이 돈다.

갯벌에서 꼬막을 채취하는 아낙들의 사진과 뻘배는 2013년 3월 31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준,『김준의 갯벌이야기』, 도서출판 이후, 2009년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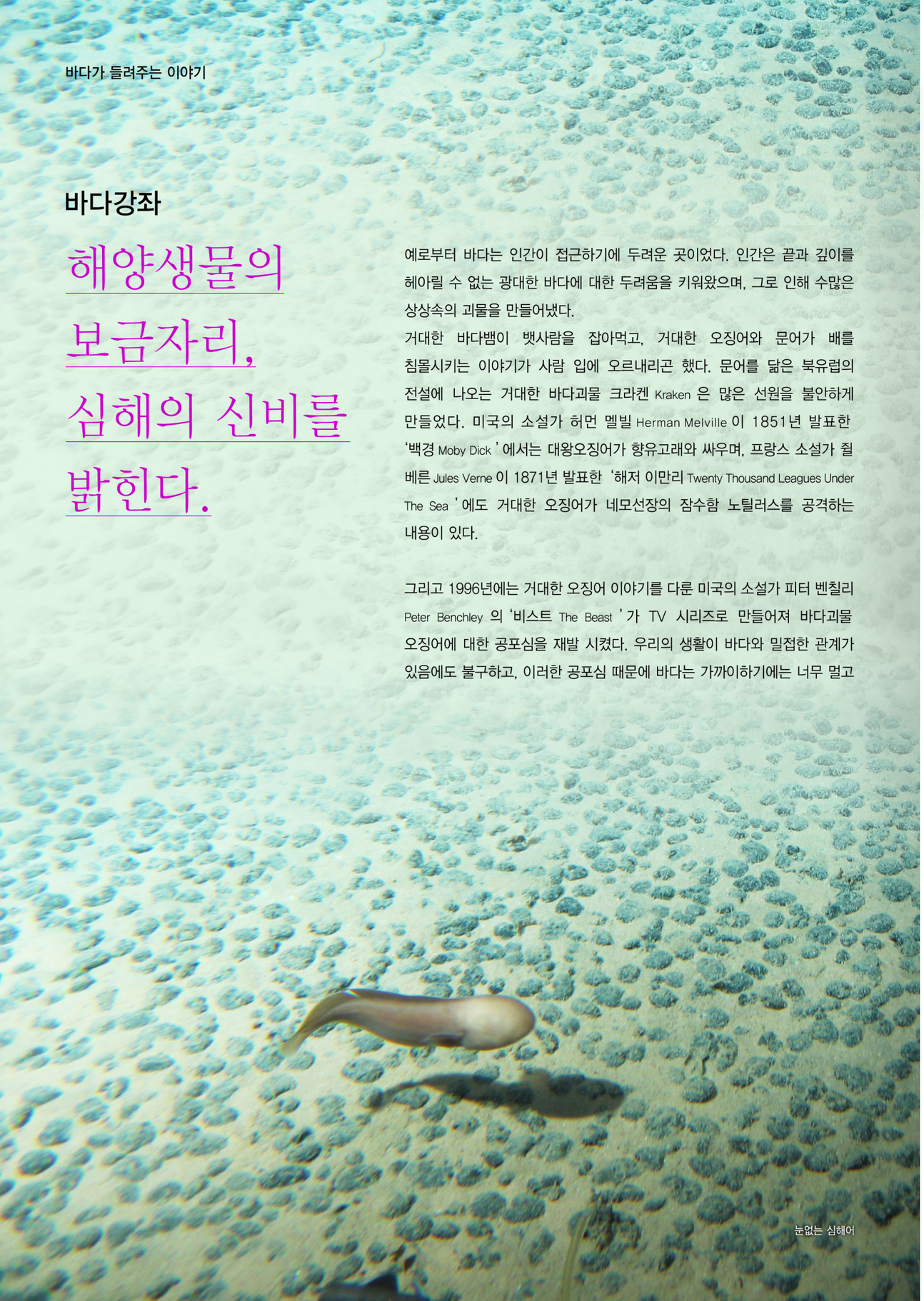
삶의 무게〈박금옥〉

바다강좌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심해의 신비를 밝힌다.

예로부터 바다는 인간이 접근하기에 두려운 곳이었다. 인간은 끝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상상속의 괴물을 만들어냈다.
거대한 바다뱀이 뱃사람을 잡아먹고, 거대한 오징어와 문어가 배를 침몰시키는 이야기가 사람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문어를 닮은 북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괴물 크라켄 Kraken 은 많은 선원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 이 1851년 발표한 '백경 Moby Dick ' 에서는 대왕오징어가 향유고래와 싸우며,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 Jules Verne 이 1871년 발표한 '해저 이만리 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 ' 에도 거대한 오징어가 네모선장의 잠수함 노틸러스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1996년에는 거대한 오징어 이야기를 다룬 미국의 소설가 피터 벤칠리 Peter Benchley 의 '비스트 The Beast ' 가 TV 시리즈로 만들어져 바다괴물 오징어에 대한 공포심을 재발 시켰다. 우리의 생활이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바다는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멀고 신비에 싸인 세계로 인식되어왔다. 더욱이 해양탐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바다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우리의 지식 밖 세계로 남아있다. 특히 심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눈없는 심해어

바다는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말처럼 "새가 일 년을 날아도 다 갈 수 없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두려운 곳"으로 남아 있지만, 생명 기원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모험심과 관심을 끌고 있다. 지구 상에 생명체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최초의 생명체가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생겨나고 진화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양 환경은 육지 환경보다 변화 폭이 작으므로, 바다는 생물이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더 유리한 장소였을 것이다.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수온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 사막이나 남북극처럼 생물들이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극한 환경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바다에는 생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 부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생물체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과정은 물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은 생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외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는 우선 물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해수의 화학성분이 바다와 육지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 체액의 화학성분과 비슷하고 모든 동물이 물속에서 초기발생을 시작한다는 점도 바다가 생명의 고향임을 시사한다.

인간도 태아 시절에는 어머니의 자궁 속 따뜻한 양수에서 자란다. 또한 바다는 지구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서식지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반면 육지는 표면적의 29%에 불과하다. 특히 남반구는 표면적의 80%가 바다이므로 육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양에서 제일 깊은 곳은 서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Mariana Trench 로 수심이 11,000m가 넘는다.

육지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고도 8,848m와 비교해 보면 대양의 수심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800m가 된다. 만약 육지의 흙으로 바다를 메워 지구표면을 고르게 한다면 육지는 평균 수심 2,440m의 바닷물 속에 잠겨버리게 된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심해에 생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국의 박물학자 에드워드 포브스 Edward Forbes, 1815-1854 는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주변의 에게해 Aegean Sea 에서 관찰했던 해양생물과 비교하기 위해 해양생물을 채집했다. 그 과정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동물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수심이 약 500m가 넘는 심해에는 동물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해에 동물이 살고 있지 않다는 포브스의 심해 무생물 가설은 한동안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왜 심해에 동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 동물은 먹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생태계를 부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먹이는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식물이다.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으나, 심해는 햇빛이 도달하지 못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초식동물이 살 수 없고, 따라서 육식동물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심해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해에 사는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은 생물의 사체를 먹는다. 심해의 바닥에 사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위에서 죽어 가라앉는 생물의 사체이다.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바다의 사막이라고 생각해왔던 심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심해에도 수많은 심해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대략 1천만에서 1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의 심해저 5,000m가 넘는 곳을 직접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IFREMER 의 심해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탐사하고 나서 느낀 가장 큰 소감은 심해가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곳이라는 것이다. 심해는 지구 속의 또 다른 우주이다.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생명의 기원과 심해의 신비를 캐내려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웅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박물관 사람들

박물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해리슨 포드처럼 화려한 유적지를 모험하며 귀중한 보물을 수집할까요? 아니면 다빈치 코드처럼 미스테리를 밝히는 사람일까요?
박물관의 한자를 풀이하면, 넓고 다양한 물건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때문에 박물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화를 지켜갑니다. 흔히 이들은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학예연구사 또는 줄여서 학예사로 부릅니다.

학예연구사 가운데 전시를 담당하는 사람을 큐레이터Curator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시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에듀케이터Educator 또는 학예교육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을 레지스트라Registrar 즉 유물관리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병원처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해 취약해진 소장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컨저베이터Conservator 즉 보존과학자라고 부릅니다.

필자는 유물관리관으로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조선통신사선의 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때문에 신문 지상에서 세계 최대의 선박 수주를 알리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은 그 전통의 명맥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영광은 이제 전설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나 구조도 후대에 편찬된 책에 소략하게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양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선박을 복원하여 일반인들에게 전통한선의 우수성을 보여 줄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을 풀어 준 배가 바로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들은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 일본의 공사립박물관 등의 여러 전시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신통신사가 타고 갔던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포돛배나 조운선 등은 내륙이나 연안을 운행하는 배로 우리의 원대한 꿈을 실은 항해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선은 일본까지 항해했던 문화교류 선박으로 조선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단청을 갖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선 채색(단청)과정

이후 복원에 필요한 여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자들의 연구검토를 거치면서 설계도면 작성, 자재수집,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대양을 항해하는 조선통신사선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개관일정에 맞춰 복원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건조 후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원한 선박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하여 단면도를 별도로 제작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일본 및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통신사선 그림을 조사, 연구하여 당시 조선통신사선에 칠해진 단청을 복원하였습니다.
복원 과정 중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지만, 박물관 건립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하였고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여러 관람객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관람하시는 것을 보면서 작은 행복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차인철(국립해양박물관 전문관)

박물관 교육행사

1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바다와 함께하는 별자리교실(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초등 4학년 ~ 중학교 2학년 | 3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고대의 항해술과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학습하면서 천체관측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별자리를 이용해 항해를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일 시	시 간	기본내용
1월 23일(수)	14:00~15:30	천체관측 소개
1월 24일(목)	14:00~15:30	고대 항해술과 별자리 이야기
1월 30일(수)	14:00~15:30	성도(별자리지도) 보기
1월 31일(목)	14:00~15:30	천체망원경 사용법
2월 6일(수)	18:00~19:30	천체관측(녹터널, 천체망원경)

2013년 정기 교육프로그램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 | 1~12월 | 전체 | 무료

전시해설프로그램으로 해설자가 층별 전시관을 안내하며 설명하는 프로그램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학습지 이용가능)

우리바다를 지켜요 | 1~12월 | 유아 | 무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동화와 동요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실제 생활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아 교육프로그램

충무공 전술비연의 암호를 풀어라 | 2월, 8월 | 가족 | 무료(재료비 별도)

우리 민족의 슬기와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는 전술비연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가족 간의 놀이로 유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깜깜한 바다 속 해미래 탐사여행 | 3~4월 | 가족 | 무료

심해탐사로봇 해미래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심해탐사과정과 다양한 심해생물에 대해 학습하고 해미래 탐사로봇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온바다를 누벼라! 아라온호 | 5~6월 | 가족 | 무료

극지의 결빙해역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역할과 탐사지역의 극지연구소에 대하여 학습하고 아라온호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

해양생물 돋보기 | 1월, 7월 | 어린이 | 무료

수족관 생물과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보는 체험프로그램

우리 가족 자산어보 만들기 | 9~10월 | 가족 | 무료(재료비 별도)

자산어보에 대해 알아보고 한지에 우리가족이 즐겨먹는 물고기 또는 해초에 대해 기록해 보는 체험프로그램

지키자 우리땅 독도 | 11~12월 | 어린이 | 무료(재료비 별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독도 모형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해양과학다큐감상교실 | 4~5월, 10~11월 | 청소년 | 무료

해양관련 과학다큐멘터리를 통해 해양의 과거를 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며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박물관대학 海人三昧 | 3~5월 | 일반인 | 무료

평생교육의 의미로 일반인을 모집하여 해양 관련 주제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강연(현장답사 포함)

갤러리토크 | 1~12월 | 일반인 | 무료

상설전시 및 기획전과 연계하여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며 전시물에 대해 해설하는 교육프로그램

바다와 함께하는 별자리 교실 | 1월 | 청소년 | 무료

항해사들이 별자리를 통해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며 천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어린이해양과학교실 | 7~8월 | 어린이 | 미정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과학실험을 통해 배우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SBS 런닝맨」 촬영 2012.12.17. (126회, 방영 : 12.30. 18:10)

지난 9월 SBS 런닝맨 '꽃중년 부산바캉스' 편에 이어 또다시 런닝맨이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런닝맨 멤버들과 게스트 최지우씨와 함께한 '2012년 런닝맨 송년파티편'을 통해 국립해양박물관의 아름다운 경관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촬영명소로 급부상한 국립해양박물관,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

갯벌전 연계 강좌 개최

2012.12.19.~2013.1.30. (매주 수요일 / 14:00~16:00)

갯벌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강좌가 개최됩니다. 갯벌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갯벌이 가진 우수성과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료특별강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한엘살바도르 대사관 거북공예작품 기증증서 전달식

2012.12.20.

국립해양박물관 박상범관장과 주한엘살바도르 대사관의 Egriselda G. Lopez 참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사 마리아 멜렌데스 작가의 거북이 공예작품의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기증받은 거북이 공예품은 2층 어린이박물관에서 '지켜줘요, 대모거북' 전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어린이 초청행사

2012.12.22.

연말을 맞아 지역아동을 초청하여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여명의 절영복지관 아동들과 함께 박물관 관람, 4D영상관, 마술뮤지컬 '해롱과 미로의 시간탐험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한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해양경찰체험행사

2012.12.23.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경찰청은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주고,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제복 입어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층 해양도서관에 마련된 해양경찰 도서코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롱과 미로의 시간탐험대' 공연

2012.12.22.~2012.1.27.(매주 토,일 / 14:00, 16:00)

겨울방학을 맞아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음악과 율동이 어우러진 어린이연극에 마술까지 더해진 마술뮤지컬 '해롱과 미로의 시간탐험대'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강연후기

난 단 한 번도 갯벌을 제대로 본 적도 가 본 적도 없었다.
단지 우리나라의 갯벌이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남아있는 갯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들었을 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갯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단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갯벌이 존재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말이다.

바다에 터전을 두고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갯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바다라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질서와 신앙, 문화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입에서 맴돈다. '사람은 갯벌에서 나온 최후의 생물이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시작도 갯벌이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갯벌이 필요하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갯벌이 없어졌을 때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인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갯벌을 이해하고 갯벌을 어떻게 유지하며 또한 갯벌을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넓어진 것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갯벌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임은수(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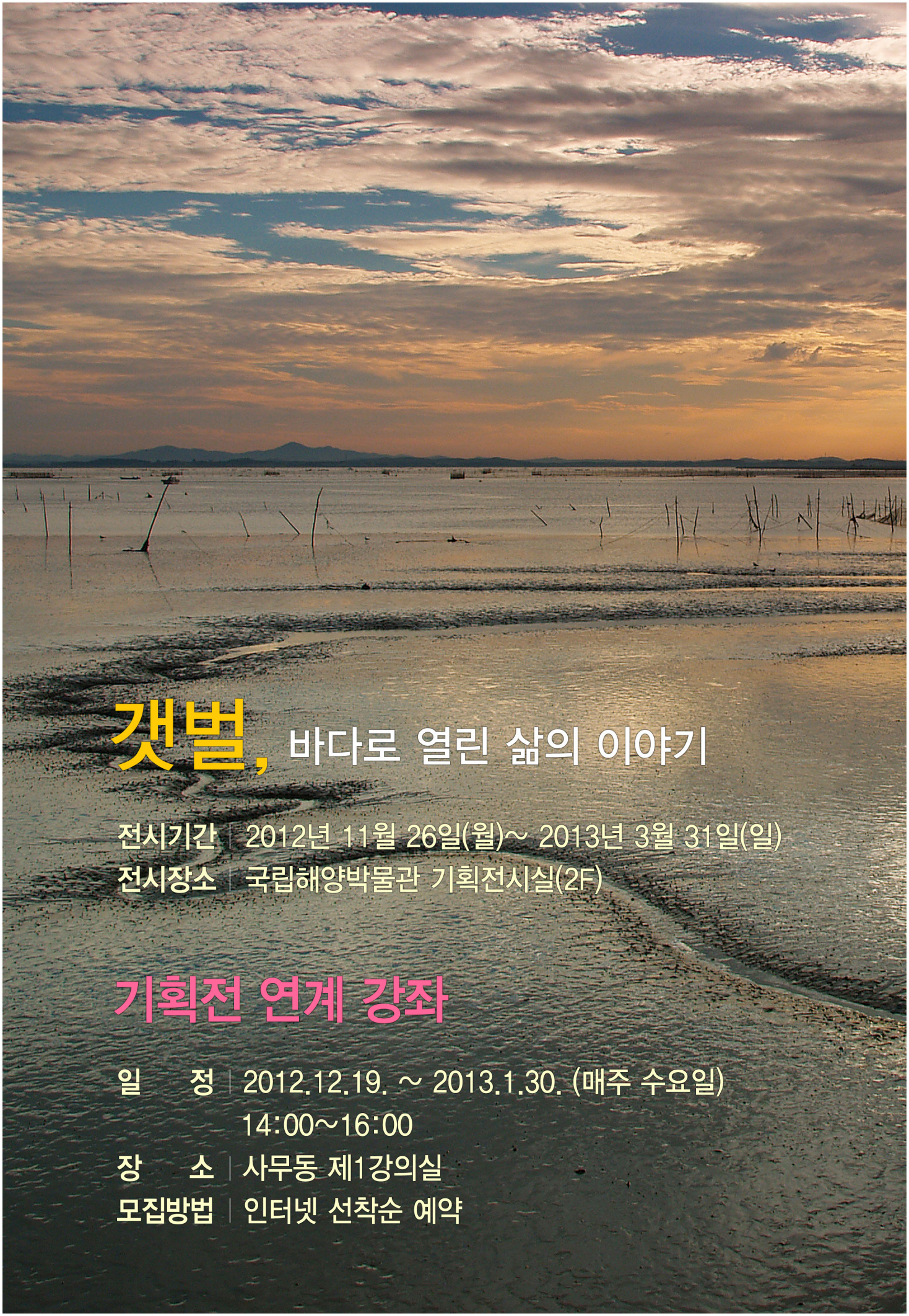
어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쓰는 활동을 떠올리곤 한다. 정작 갯벌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빼놓고 생각하기 쉽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남해안이라 더욱 관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1박2일 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벌교에서 꼬막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꼬막 2000개를 캐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캐는데도 쉽사리 모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특히 "꼬막이 그냥 캐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피땀으로 얻어지는 것" 이라고 말했던 강호동씨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갯벌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분들은 분명 이 장면을 보고 울컥했으리라는 생각에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천일염은 좋은 날씨와 소금을 만드는 사람의 땀내 나는 노력으로 25일 만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만드는 사람의 열정에 하늘이 내린 날씨가 더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선물인 것이다.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물고기 족보와 갯벌생물들을 담은 화폭들을 포함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보물창고인 갯벌은 우리만 감상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게 된다.

이준혁(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전시기간 | 2012년 11월 26일(월)~ 2013년 3월 31일(일)
전시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2F)

기획전 연계 강좌

일　　정 | 2012.12.19. ~ 2013.1.30. (매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 | 사무동 제1강의실
모집방법 | 인터넷 선착순 예약